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영국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Care Leaver Statistics 운영체계, 보호종료 이후 사후관리체계 및 현장서비스 운영사례를 조사하여 국내 자립지원실태 조사체계 개선과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사점 도출

☐ 과제명

2026 자립지원 실태조사

☐ 출장기간

2026. 8. 31.(월) ~ 9. 5.(토)

☐ 출장국가(도시)

영국(런던)

☐ 출장자

이주연 부연구위원(아동보호체계 관련 일부 회의 함께 참석)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8.31.(월)	영국(런던)			출발, 도착
9.1.(화)	-	Department of Education	Thomasin Freeman 외 4인	2026년 아동보호체계 개편, care leaver 자립지원 등 교육부 정책 논의
9.1.(화)	-	Drive Forward Foundation	Juno Schwarz, William Kerridge	영국 민간 자립지원 기관 운영 및 공공과의 연계 방식, 취업지원 서비스 논의
9.2.(수)	-	University of Oxford	Julie Selwyn	가정외보호아동, 자립준비청년 정책 연구 동향 등 논의
9.3.(목)	영국(리즈시)	Archway hub	Gail Whiting 외 2인	광역 자립지원전달체계 탐색, 자립지원정책 및 서비스 논의
9.4.(금)	영국(런던)			출발
9.5.(토)	한국(인천)			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
일 시	2026.9.1.(화). 10:00~12:00
장 소	런던(Department of Education)
참석자	원외: Thomasin Freeman, Simran Panesar, Emma Davis, Ashlen 원내: 이상정, 이주연
○ 영국 아동사회보호 개혁의 기본 방향 • 최근 개혁의 핵심 방향은 아동을 가능한 한 원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기가 심화되기 전에 조기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것임. • Family Group Decision Making 등을 통해 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하기보다 가족과 관계망이 아동의 보호방안을 함께 논의하도록 강화. • 보건, 교육, 주거 등 여러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을 확대하고, 학교가 아동의 위험과 가족의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련 기관에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 • 아동이 보호체계에 진입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배치가 아니라 보호의 질과 장기적인 관계의 지속성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함. The 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Act 2026 • The King signed the Bill on 29th April meaning it is now an act of law. The Act will make important changes to protect children and improve education with work beginning from now to put these changes into place. • It is the most ambitious piece of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in a generation. It's about strengthening support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especially the most vulnerable, while also backing families and helping parents with the cost of everyday life. • The overall aim is to improve child and young person welfare, reduce inequality, and make sure every child gets the best start in life.  3 <자료: 영국 교육부 제공> ○ 조기개입 및 교육·사회보호 간 연계 강화 • DfE는 전체 체계를 위기 발생 후 개입에서 조기개입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약 24억 파운드를 투자한다고 설명. • 학교는 직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아동의 행동·상황 변화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방정부 사회서비스·보건·경찰 등과 정보를 공유하여 조기지원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 • 위기가 심화된 뒤 사회서비스에 의뢰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징후가 나타나는 단계부터 여러 기관이 개입하는 것을 지향함.	

○ 지방정부 간 편차와 중앙정부의 관리

- 지방정부별 여건과 인구구성이 다르므로 획일적인 서비스 모델을 요구하기보다 지역 자율성을 인정하되, 아동의 성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
- Ofsted의 검사, 전국 행정자료(SSDA903), DfE 지역조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서비스와 성과를 모니터링.
- 기존에는 특정 서비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가보다 실제로 아동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려는 방향을 강조함.

○ Kinship Care 및 입양정책

- 영국은 아동을 가능한 한 부모 또는 확대가족 관계망 안에서 보호하는 것을 우선하며, kinship care를 중요한 보호대안으로 인식.
- Kinship의 범위는 조부모 등 혈연관계뿐 아니라 아동과 기존에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진 성인까지 폭넓게 볼 수 있음.
- 다만 kinship placement 자체를 해결책으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친족보호자가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정서·서비스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
- 친족보호자는 경제적 어려움, 고령, 가족 내 복잡한 관계 등 추가적인 부담을 경험할 수 있으므로 일반 가정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함.
- 입양은 가정 내 또는 친족 내에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 사용하는 아동보호의 한 수단

○ Foster Care 개혁

- Foster care는 친생가족과 안전하게 거주할 수 없는 아동에게 가족환경과 안정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핵심 보호형태로 설명.
- 주요 문제: foster carers 감소 및 고령화, 아동보호 수요 증가, 적합한 foster placement 부족에 따른 원거리 배치, 불필요한 residential care 이용, foster carer 모집·승인 과정의 복잡성, foster carers에 대한 지원 부족 등
- 대응방안: 지방정부 공동 recruitment hub, 전국 단위 모집 캠페인, 주택 개보수 지원, respite/weekend fostering, Mockingbird와 같은 peer support, 국가 quality standards 개선 등 추진.
- foster carers 수를 늘리는 것뿐 아니라 carer 유지, 적절한 매칭, 장기간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16-17세 Supported Accommodation

- Supported Accommodation은 2023년 10월부터 규제체계가 도입된 비교적 새로운 보호형태로, 모든 16-17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의 자립역량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 Foster care나 children's home처럼 일상생활을 대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재정관리,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스스로 수행하도록 지원하면서 성인기로의 전환을 준비시키는 방식.

- 복합욕구가 크거나 personal care가 필요하거나 독립생활 준비도가 낮은 청소년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이 경우 foster care나 children's home 등 다른 보호형태가 필요함.
- 과거 independent/semi-independent provision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아 어린 아동까지 부적절한 환경에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등록 및 규제제도를 도입.
- 현재 주요 과제로는 지방정부와 제공기관이 care와 support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대상자를 배치하는 것이 제시됨.
- 배치 여부는 연령만이 아니라 청소년의 성숙도와 자립준비도를 지방정부가 평가하고, 청소년 본인의 의사도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봄. 교육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시점도 조정할 수 있음.
- 제도 시행 초기이므로 장기성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제한적이며, 일정 기간 자료축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Care Leaver의 성인기 전환지원

- 영국은 보호종료를 단순히 18세에 독립시키는 과정으로 보지 않고, 25세까지 연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강화하고 있음.
- 일정한 보호경력을 가진 청년은 care leaver로 인정되며, 18-21세까지 Personal Adviser와 Pathway Plan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청년이 원할 경우 25세까지 지원을 계속하거나 중단 후 다시 요청할 수 있음.
- 핵심 과제는 보호 중 24시간 지원을 받던 청년이 18세 이후 갑자기 독립생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지원의 단절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Staying Close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주거뿐 아니라 교육·훈련·건강·복지 및 관계 지원을 포괄하도록 추진하며, 지원주거와 관계 기반 주거모델 등을 확대하고 있음.
- Local Offer 강화, 주거 관련 부처와의 협업, Staying Put, Care Leaver Covenant, Family Finding, mentoring 등을 통해 교육·고용·주거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지원함.
- 특히 “아동이 보호체계를 떠나 곧바로 homelessness 경로로 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함.

○ 성과지표와 Enduring Relationships

- 기존에는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housing 등 비교적 객관적인 성과자료를 중심으로 수집해 왔으며, health·wellbeing 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임.
- DfE 관계자는 향후 care leaver 성과를 교육·훈련·고용, 주거뿐 아니라 건강과 wellbeing까지 포함하여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 단일 서비스나 개별 성과가 좋아도 청년이 스스로 “supported, loved and anchored” 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충분한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이에 따라 최근 개혁의 중요한 방향은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뿐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신뢰관계 자체를 성과이자 지원기반으로 보는 Enduring Relationships에 있음.

②	Drive Forward Foundation
일 시	9.1.(화). 15:00~17:00
장 소	런던(Drive Forward Foundation)
참석자	원외: Juno Schwarz, William Kerridge 원내: 이상정
○ Drive Forward Foundation 소개 • 2010년부터 런던에서 보호경험청년(care-experienced young people)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고용 진입 및 지속가능한 경력 형성을 지원 • 단순 취업알선보다 지속적인 1:1 관계 기반 지원을 핵심 모델로 운영 • Career Specialist가 청년의 취업뿐 아니라 주거, 건강, 가족문제 등 생활 전반의 어려움을 함께 다루고 필요 시 전문기관과 연계 ○ 관계 기반 1:1 지원 • 여러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통해 청년의 변화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관계라고 판단 • Career Specialist는 단순 취업상담자가 아니라 청년에게 trusted adult 역할 수행 • 취업 준비 정도가 낮은 청년에게는 외출, 대면상담 등 매우 기초적인 단계부터 개별화된 지원 제공 ○ 지방정부 서비스와의 연계 및 co-location • Career Specialist가 지방정부 leaving care service 공간에 정기적으로 배치 • 청년이 Personal Adviser를 만나러 온 자리에서 Career Specialist와도 바로 상담 가능 • 예약 없이도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 Personal Adviser, 고용지원 인력, Jobcentre 관계자, 정신건강서비스 등이 한 공간에서 지원하는 허브형 모델 지향 •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부담을 완화 ○ 민간 전문기관으로서의 강점 • 일부 청년은 지방정부 보호서비스에 대한 부정적 경험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음 • 지방정부와 구분되는 민간기관이 관계 형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지방정부 내부 EET 지원과 달리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기업 및 취업기회를 연결 가능 ○ 고용주와의 파트너십 • Drive Forward의 핵심 특징 중 하나는 청년지원과 동시에 고용주와의 관계 구축을 수행하는 것 • 기업 내 HR, 관리자, 의사결정권자 등 조직 내부의 핵심 지지자를 발굴하여 관계 지속	

-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기업 내 2~3명의 관계자를 확보해 파트너십의 지속성을 높이는 전략 사용
- 지방정부의 자체 고용지원보다 지역 경계를 넘어 중앙 런던 등 다양한 지역의 일자리 연계 가능

○ 고용주 교육 및 채용절차 개선

- 보호경험청년이 겪는 교육적 불이익, 트라우마, 주거·관계 문제 등을 고용주에게 설명
- 학력이나 자격보다 청년의 potential을 중심으로 채용할 필요성을 강조
- 면접 질문 사전 제공, 면접관 정보 제공, 직무 설명 webinar 등 채용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지원 실시
- employer toolkit을 개발하여 채용공고 작성부터 고용 종료 또는 다음 직무 준비까지 단계별 포용적 지원방식 제시
- 기업교육에 아동발달, 트라우마, 보호체계에 대한 이해 포함

○ 취업 후 유지지원

- 취업 자체보다 취업 유지(sustainment)를 중시
- 청년의 결근, 직장 내 갈등, 상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Career Specialist가 청년과 고용주 사이에서 중재
- 단순한 의사소통 부족이나 오해가 해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 역할 수행
- 고용주 편 또는 청년 편에 일방적으로 서기보다 양측의 이해와 적응을 함께 지원

○ 장기적·유연한 서비스 구조

- 서비스 이용 가능 연령은 원칙적으로 16세부터 27세 생일까지
-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필요에 따라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참여 가능
- 취업 후 서비스 종료가 아니라, 대학 진학 후 취업, 이직, 경력변경 등 새로운 필요가 발생하면 다시 이용 가능
- 핵심 철학은 첫 일자리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career를 형성하도록 지원하는 것

○ 사례관리 규모와 지원 강도

- 기관 전체적으로 연간 약 750명의 청년 지원
- Career Specialist 1인당 한 시점의 담당 인원은 약 35명, 연간 약 60명 수준
- 실제 담당 규모는 청년의 지원 필요도에 따라 약 20~40명 수준으로 달라짐
- 고강도 사례는 주 1회 대면, 격일 연락 등 집중 지원
- 안정적으로 취업한 청년은 2주 간격의 점검 등으로 지원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

○ 사회적 자본과 진로경험 확대

- 취업알선 외에도 기업 CEO, 관리자,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청년의 사회적 자본 확대
- 특정 산업분야에 대해 기업 방문, 현장 체험, 종사자와의 1:1 대화, 실제 취업기회까지 연결하는 진로경로 개발

- 청년의 희망직업과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경로를 설계하고 단순히 구하기 쉬운 일자리로 유도하지 않음

○ 성과관리

- 단순 취업 여부뿐 아니라 취업·교육·훈련(EET) 진입 후 13주 및 26주 유지 여부를 성과로 측정
- 초기 3개월을 직장생활, 일상, 복지급여 변화, 새로운 관계 등에 적응하는 가장 어려운 시기로 인식
- 전년도 기준 해당 연도 참여자의 약 43%가 EET 성과를 달성
- 이 중 약 70~75%가 3개월 이상 지속한 것으로 보고
- 취업 시작보다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을 지속하고 다음 경력으로 이어갈 수 있는지를 중시

○ Care Leaver Covenant와의 차이

- Care Leaver Covenant는 전국 수준에서 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directory 및 jobs platform 성격
- 기업 대상 가이드와 교육도 제공하지만 개별 청년과 직접 집중적으로 일하는 모델은 아님
- Drive Forward는 개별 청년과 직접 관계를 맺고 취업준비, 채용, 취업 후 적응, 경력변경까지 지속적으로 지원

○ Drive Forward가 제시한 핵심 실천요소

-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한 명의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 Career Specialist뿐 아니라 교사, 위탁부모, 공공서비스 담당자 등 누구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음
- 보호체계를 떠날 때 최소 1명, 가능하면 2~3명의 trusted adults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
- 핵심 키워드로 Relationships, Flexibility, Longevity 제시
- 취업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제공하는 지원과 유사한 holistic support가 필요

③	University of Oxford, Rees center
일 시	9.2.(수). 11:15~13:00
장 소	런던(University of Oxford, Rees center)
참석자	원외: Julie Selwyn 원내: 이상정, 이주연

○ 보호아동의 안정성과 지속적 관계의 중요성

- 보호아동에게는 동일한 보호장소에 오래 머무르는 것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육자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
- 특히 2세 이전의 안정적 보호와 secure attachment 형성이 이후 발달과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 시설에서 장기간 생활하더라도 다수의 양육자가 교대하는 경우 특정 성인과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보호의 안정성을 평가할 때 placement stability와 함께 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할 필요

○ 보호성과의 다차원적 평가

- 보호아동의 성과를 대학진학, 교육수준, 취업 등 객관적 지표만으로 판단하는 데 한계
- 교육·취업 성과가 양호하더라도 정신건강이나 관계 측면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
-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등 보호유형의 성과를 비교할 때 “무엇을 성과(outcome)로 측정하는가” *가 중요
- 보호유형의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횡단면 조사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정교한 연구설계 필요

○ 보호종료 후 급격한 독립의 문제

- 영국에서도 보호 중 충분한 지원을 받던 청년이 18세 이후 갑자기 혼자 생활하게 되는 급격한 성인기 전환이 주요 문제
- 특히 외로움(loneliness), 적절한 주거 부족, 교육·취업의 어려움 등이 보호종료 이후 주요 위험요인
- 시설보호 청년은 공동생활에서 갑자기 1인 생활로 전환되면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더욱 크게 경험할 가능성

○ 보호와 자립지원의 연속성

- 보호종료를 지원의 종료로 보기보다 보호 중 형성된 관계와 지원을 성인기까지 지속하는 접근이 중요
- Staying Put을 통해 보호종료 후에도 기존 foster carer와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Staying Close는 시설보호를 떠난 청년이 기존 시설 및 관계망과 가까운 곳에서 생활하도록 지원
- foster carer에 대한 재정지원과 적절한 주택 부족 등으로 실제 이용 확대에는 한계

○ Personal Adviser의 관계적 지원과 전문성

- 보호종료청년에게 Personal Adviser를 배정하여 성인기 전환과 자립생활을 지원
- PA는 취업, 식생활 등 실용적 문제에는 비교적 쉽게 개입하지만 정신건강·자해 등 정서적 문제를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경험
- 행정적으로 배정된 전문가뿐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 중요

- 지원인력에게 생활·취업지원뿐 아니라 정신건강과 정서적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교육 강화 필요

○ 객관적 자립성과 지표의 한계

- 현재 영국의 주요 자립성과 지표는 지방정부와의 연락 여부, 적절한 주거, 교육·취업·훈련(EET) 참여 여부 등에 집중
- Selwyn 교수는 이러한 지표만으로 성공적인 성인기 전환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
- 특히 주거의 적절성은 전문가가 평가한 행정자료와 청년 당사자의 평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서비스 제공 여부뿐 아니라 청년이 실제로 자신의 삶과 지원을 어떻게 경험하는지를 성과평가에 반영할 필요

○ 관계적·주관적 자립성과 지표

- Coram Voice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보호아동과 보호종료청년에게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직접 조사
- 교육, 취업, 주거뿐 아니라 loneliness, trusted adult의 존재, 관계와 사회적 지지 등을 중요한 성과로 고려할 필요
- 특히 “신뢰할 수 있는 성인이 있는가(Do you have a trusted adult?)”는 관계적 지원 기반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제안
- 자립성과를 경제적, 기능적 독립뿐 아니라 관계, 사회적 연결, 주관적 wellbeing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 보호종료청년 조기사망에 대한 검토

- 보호종료청년의 자살 등 조기사망 사례가 보고되면서 care leavers의 사망에 대한 별도의 검토 실시
- 일반적인 아동 사망검토와 구분, 보호종료청년의 사망 원인과 경험을 파악하려는 접근
- 조기사망 위험은 보호종료 이후의 상황뿐 아니라 아동기 학대·방임, 트라우마의 장기적 영향과 함께 이해 필요
- 보호체계를 단순한 보호조치가 아니라 초기 역경과 트라우마로부터 회복을 지원하는 개입(intervention to aid recovery)으로 이해할 필요

④	Archway hub
일 시	9.3.(목). 11:30~13:00
장 소	리즈시(Archway hub)
참석자	원외: Gail Whiting, Elliott Stubbs, Harbinder Kaur 원내: 이상정

○ 보호진입 이후 permanency planning

- 아동이 looked after가 된 이후에도 초기에는 area child protection social work team이 담당
- 이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
 - ① 원가정 복귀
 - ② 친족 또는 가족 구성원과의 생활
 - ③ 입양
 - ④ 장기 위탁보호
- 장기보호가 결정되면 looked-after children 전문팀으로 이동
- 즉 보호진입을 최종 목적지로 보기보다, 가능한 permanency option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는 구조

○ 보호아동에서 Care Leavers Service로의 전환

- Leeds에는 연령에 따라 looked-after children 팀이 구분되어 있음
- 13세 이상 청소년을 담당하는 별도 팀 운영
- Care Leavers Service로의 전환은 일반적으로 약 17세 반경부터 시작, 이 시점부터 PA와 소개 및 관계형성 시작
- Archway Hub 서비스와 향후 자립지원 내용도 미리 안내
- 18세가 되면 PA가 공식적으로 주요 담당자가 되어 post-18 지원을 담당

○ 전환 시점은 청년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

- 취약성이 높거나 복잡한 욕구가 있는 경우 PA 배정이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음
- 반대로 사례에 따라 인계가 조금 늦게 완료되기도 함
- Care Leavers Service는 looked-after teams와 협력하여 배치, 가족관계, 향후 주거 및 post-18 계획을 미리 파악
- 보호종료 직전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중시

○ Staying Put과 보호종료 후 지원

- 위탁가정의 경우 18세 이후 Staying Put을 통해 계속 머무를 수 있음
-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은 일반적으로 21세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
- 21세 이후에는 청년과 위탁보호자 간 사적 관계로 지속될 수 있음
- 특히 교육 중이거나 안정적인 가족환경에서 계속 지내고 싶어 하는 청년에게 유용
- 21세가 또 하나의 'cliff edge' 가 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럽게 지원을 끊기보다 점진적으로 독립하도록 지원
- 필요하면 25세까지 지원 가능하며, 지원을 중단했다가도 청년이 다시 필요로 할 경우 재접근 가능

○ Lifelong Links와 Family Group Conference

- Leeds는 care-experienced young people의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 Lifelong Links 운영
- 국내외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찾고 다시 연결하도록 지원

- Family Group Conference(FGC)를 통해 가족 네트워크 전체가 care planning과 의사결정에 참여
- 핵심은 서비스 전문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과 가족이 자신들의 계획을 함께 만드는 것

○ Archway Hub의 설립 배경

- Archway Hub는 약 3~4년 전에 설치
- 이전에는 looked-after service와 care leavers service가 같은 사무실에 함께 있었음
- 이후 연구와 서비스 재구조화를 통해 care leavers가 자신들만의 공간을 갖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판단
- 청년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여러 활동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독립적인 물리적 거점으로 발전

○ Archway Hub 내 통합서비스

- Personal Advisers가 같은 건물에 근무
- Supported accommodation 및 post-18 tenancy support 인력 배치
- Benefits and finance team 운영
- 과거에는 DWP benefits worker도 상주
- 부모가 된 care leaver를 위한 parent and baby group 운영
- 여러 제3기관 및 전문서비스와 연계
- 하나의 건물 안에서 다양한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multi-agency hub 성격

○ Staying Close 기반 전문지원

- Archway의 중요한 축 중 하나가 Staying Close Model
- 정부재원에 기반한 한시적 사업이지만 약 2년간 운영
- 주요 전문인력
 - Participation and Engagement Worker
 - Edu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EET) Workers
 - Therapeutic Advanced Practitioner
 - Adult Social Work Transition Worker
 - Personal Advisers
- 특히 residential care에서 나오는 취약·복합욕구 청년에게 집중적인 지원 제공
- 정신건강 및 치료적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therapeutic advanced practitioner가 복합적인 정신건강·정서적 욕구 사례 지원
- PA에게 복합사례에 대한 자문과 supervision 제공, 별도의 therapeutic team을 통한 상담도 제공
- care leaver 지원을 주거·취업 중심으로 한정하지 않고 정서적·정신건강 지원까지 포함
- 아동서비스에서 성인서비스로의 연결

- 학습장애나 disability가 있는 청년에게는 adult social worker가 transition worker 역할 수행
- 아동서비스와 성인서비스 사이에서 assessment, 담당자 배정, 업무책임 등을 추적·조정
- 인터뷰에서는 이 역할을 양 체계를 연결하는 ‘glue’와 같은 기능이라고 표현
- 복합욕구 청년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단절을 예방하는 핵심장치

○ Archway Hub의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의미

- Leeds 전역의 care leaver가 찾아올 수 있는 중앙거점을 오랫동안 필요로 했고, 현재 건물을 확보하면서 구현
- 청년들이 단순히 상담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를 마시고, 대화하고, TV를 보고, 또래를 만나고, 빨래를 하고, 주방을 이용하는 등 일상적인 공간으로 활용
- 복싱, 축구, 각종 그룹활동과 정기 프로그램 운영

○ Hub의 핵심 목적: 소속감과 공동체 형성

- 보호종료 후 독립생활을 시작하면서 청년들이 심각한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
- 비슷한 보호경험을 가진 또래를 만나 서로 관계를 형성하도록 지원
- Prom 형태의 축하행사, Sports Day 등 즐거움과 축하를 중심으로 한 이벤트도 운영
- 이는 서비스 제공을 넘어 “care leaver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함
- 가족지지자가 없는 청년에게는 또래 관계 자체가 새로운 지지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

○ Archway Hub의 접근성 한계

- Leeds에는 care leaver 전용 Archway Hub가 현재 한 곳뿐
- 도시 규모가 크고 외곽 또는 Leeds 밖에 배치된 청년에게는 접근성이 제한될 수 있음
- 향후 더 작은 locality-based hubs를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성으로 언급
- 다만 현재 Archway는 도심에서 버스로 약 10분 거리의 주요 도로에 위치해 비교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
- 월 1회 Sunday lunch club 등 주말 프로그램도 운영

○ PA 배정과 사전 인계

- 이상적으로는 약 17세 반부터 PA를 배정하는 것이 목표
- 현재는 인력여건상 항상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18세 생일 3개월 전까지는 배정하려고 함
- PA 배정 후 social worker 및 team manager와 transfer meeting 실시
-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공유: 장기계획, 현재 placement, 가족관계, 교육·훈련, 관심사, 위험요인, post-18 계획
- 이후 social worker와 PA가 함께 청년을 만나고 18세에 공식적으로 Care Leavers Service로 이전

①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



②

Drive Forward Foundation



Juno Schwarz <juno@driveforwardfoundation.org> 09.07 21:22 [52.101.83.107, Sweden]

받는 사람: Will Kerridge <will@driveforwardfoundation.org>, 이상정

Hi Lee,

Good to hear you got home alright and that your time in London was so productive. I'm very pleased that we could add value to your research.

Absolutely, please do keep in touch. We're always happy to support as well as learn about how other countries are improving services and futures for care-experienced young people.

Thank you and best wishes,

Juno

Sent: 07 September 2026 12:12 PM

To: 이상정 <sllee@kihasa.re.kr>; Juno Schwarz <juno@driveforwardfoundation.org>

Subject: RE: Request for a Research Visit to Drive Forward Foundation (1-4 September 2026)

Hi Sang Jung Lee,

It was lovely to meet with you last week and learn about care leaver services in Korea too. Also thanks for the gifts!

I hope your research continues to go well, let us know if there's anything else we can support with.

Best wishes,

Will Kerridge

(he/him)

Policy & Advocacy Manager
and Designated Safeguarding Lead
OFFICE | 0207 620 3000
MOBILE | 07831 702378



FROM CARE TO CAREER

Drive Forward Foundation
14-15 Lower Marsh | London SE1 7RJ
WWW.DRIVEFORWARDFOUNDATION.ORG
Registered Charity No. 1018750

③ University of Oxford, Rees center



④ Archway hub

Re: Thank you for meeting with me at Archway Hub



Whiting, Gail <gail.whiting@leeds.gov.uk> 09.09 01:48 [185.58.85.113,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받는 사람: 이상정

Hi Sang,

Thank you so much for your email.

I am really pleased to hear that you have returned safely to Korea. I hope that your trip to the UK was worthwhile.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come and meet with us and learn more about how we work and what we do in Leeds.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also hear about developments in Korea and how things work there.

Yes I would definitely be interested to stay in touch and share any ideas.

Many thanks

Gail

Gail Whiting
Early Help Locality Lead - South
Family Hubs
0113 3785379

